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교육서비스업 재조명

박영숙\*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처장

yspark@kedi.re.kr



## 1. 창조경제 구현과 교육 서비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더불어 최근에는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란 관점에서 교육 서비스를 재조명해보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교육 서비스의 역할을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접근하면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일자리를 탐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으나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생애 발달 관점으로 일자리의 주기를 재고하게 되면, 교육 서비스업에 속한 다양한 직종에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기관에서도 교육정책 추진과 더불어 교육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는 교육기관들이 부각되고 있어 이들 교육기관에 대한 집중 조명이 필요하다.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 학사, 동 대학원 교육학 석사 및 박사,
- 전)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타당성 심사위원,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정책자문위원,
- 현) 새누리당 교육정책위원회 자문위원, 한국교육행정학회 이사, 한국교원교육학회 부회장
- 한국 교사의 학교생활문화 개선 연구(2013), 주5일수업제 도입에 따른 교사 수업 지원 방안 연구(2012), 교원양성기관평가사업(2011), 교육전문직 인사제도 개선 방안 연구(2011), 교육 서비스업 인력 증대기 수급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2007)

\* 이하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 제59차 교육정책포럼(주제: 교육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2013년 10월 4일 실시)에서 저자가 발표한 주제발표(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교육서비스 활성화)의 일부 내용을 토대로 서울 지역의 교육 서비스업 활성화에 주는 시사점을 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창조산업이란 관점에서 교육 서비스업을 재조명하게 되면, 성장 동인이 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고용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은 직종과 인력 유형을 발굴하는 것이 시급하다. 교육에 대한 투자 계획이 장기적으로 접근되는 특징을 감안해 보면, 추진 성과가 가시화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어야 하므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려면 보다 조기에 착수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조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 동인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조망하고, 성장 동인을 중심으로 교육투자 대상과 영역을 진단 발굴할 필요가 높다.

## 2. 창조산업으로서의 교육 서비스업 재조명

교육 서비스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하나로써 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창조산업으로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창조산업은 속성상 창조상품을 생산해야 하고, 유통을 위해 창조 서비스가 전략적으로 지원된다.<sup>1)</sup> 교육 서비스업에서는 창조 서비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와 연계된 역할을 정립하고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2013년 9월 24일 국회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창조경제! 창조경제 성공을 위한 실질적 협력방안 토론회’ 이 열렸다. 이날 주제 발표 ‘창조경제가 나아갈 방향’에서는 창조산업의 분류와 창조경제역량에 관한 국제비교진단 결과가 제시되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여기서 제시된 창조산업은 ① 광고, ② 건축, ③ 예술, ④ 공예, ⑤ 패션, ⑥ 출판, ⑦ 소프트웨어 등 정보 관련 산업, ⑧ 영상 오디오, ⑨ 오락 등, ⑩ R&D, ⑪ ICT 기기로 제시된다.<sup>2)</sup>

이중 교육서비스의 기능상 속할 수 있는 유형은 R&D일 수 있으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어 교육기관에 속한 인적자원의 창조적 역량 개발에 관련된 기능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11가지 분류 외에 교육 서비스가 추가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필요는 창조경제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의 속성과 연관되어 살펴볼 때 더욱 그러하다. 즉 창조경제 역량은 창조경제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 즉 ① 인적자본, ② 혁신 자

1) 한상완외 2인(2013), 창조경제의 성공은 창조산업 육성부터: 국내 창조산업의 신성장동력 가능성 평가,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 주평, 통권 542호, 6월 7일,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p.22.

2) 앞의 글, p.33.

본, ③ ICT 자본, ④ 문화 자본, ⑤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창조경제역량을 지수를 중심으로 OECD 국가와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sup>3)</sup> 우리나라의 창조경제역량 지수는 6.2로 평균 6.3보다 낮고 평가 순위는 OECD 31개국 가운데 20위에 머물러 있다. 창조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별로 평가 순위를 살펴보면, ICT자본 역량(1위, 8.5점), 혁신자본 역량(11위, 5.4점), 사회적 자본 역량(21위, 6.7점), 인적 자본 역량(22위, 6.5점), 문화자본 역량(29위, 3.7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ICT 자본 역량과 혁신자본 역량은 상위권에 있는 반면, 사회적 자본 역량과 인적자본 역량, 문화자본 역량은 하위권에 밀려있다.

이 가운데 인적자본 역량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위 덴마크(8.9점)와는 2.1점의 차이가 났는데 주요 원인은 대학교육 만족도, 과학교육, 교육시스템 수준 등이 중하위권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중하위권으로 평가된 교육시스템 수준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고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 인적자본 역량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 서비스업이 창조산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있게 재조명될 필요가 높다. 현재 교육 서비스업을 통해 길러내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인적자본이 창조산업으로서 성장해 나갈 동력으로 육성되고 있는지 진단이 필요한 때이다.

### 3. 창조산업으로서의 교육 서비스업 성장 가능성

창조산업으로서 교육 서비스업을 재조명할 때,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가능성에 관하여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 국내 창조산업의 신성장 동력은 ① 성장 속도, ② 부가가치 유발 효과, ③ 고용 유발 효과, ④ 생산성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진단된다. 이들 네 가지를 기준으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금년도 평가 진단하여 보고한 결과에서는 산업의 규모가 큰 R&D와 소프트웨어 등 정보 관련 사업을 창조산업 내 융합 엔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이밖에 창조산업의 여건이 미흡하며 몇 개 특정 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점과 부가 가치 창출과 고용 유발 효과 등에서도 산업간 격차가 존재하므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요구되는 점이 강조된 바 있다.

3) 앞의 글, pp.27-30

이중 부가 가치와 고용유발 효과에 산업간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교육서비스업과 연계하여 살펴볼 수 있겠다. 부가가치가 높은 창조산업의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관련 3개 산업에 주목되는 문제에 주목할 만하다. 즉, 2011년 기준 전체 창조산업 부가가치의 73.8%, 취업자 수의 65.3%가 소프트웨어 등 정보관련 산업, R&D, ICT기기 등의 3개 산업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생산성 측면에서도 광고 산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약 2,770만원에 불과한데 ICT기기 산업은 9,230만원으로 3.3배 차이가 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고용 유발 계수 측면에서는 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산업은 건축으로 제시되었다. 2011년 건축은 0.902이나, ICT 기기는 0.441에 불과하였다. R&D는 최종 수요 10억 원당 고용 유발 효과가 19.8명으로 가장 높지만 ICT 기기는 6.5명으로 낮았다<sup>4)</sup>.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교육 서비스업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휴먼웨어의 창의역량 수준과 휴먼웨어의 저변 확대이다. 특히 휴먼웨어의 저변은 창조서비스를 지원하는 인력 군 확대에 관심이 높다. 경쟁력 높고 구매력 높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창의 인재 육성이 시급하고, 기존의 공교육이 혁신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이와 연계하여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공교육혁신 방안, 창의인재 육성 방향과 과제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된 바 있으나,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유통을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창의적 서비스를 위한 지원 인력군의 양성에 관한 논의는 부족하다.

창조산업의 관점에서 고용효과가 높은 일자리는 창의 상품과 창의 서비스에 관련된 인력군의 확보로부터 시작한다. 창의 인력군의 확보를 위한 접근 관점에 변화가 필요하다. 즉, 창의 상품을 개발하고 제작생산하는 인력 군 확보에 관한 논의로부터 창조서비스를 위한 지원 인력 군으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교육서비스 영역에서는 창조경제역량 진단 평가에서 고용 유발효과가 가장 높게 제시된 ‘건축’ 영역과 ‘R&D’ 영역을 중심으로 성장 가능성을 전망하고 창조서비스 지원 인력 군이 탐색되어야 한다.

교육 서비스업에 속하는 대부분의 인력이 초중등 및 고등교육단계의 교육기관과 일반 고습학원에 몰려있다. 최근 교육기관에는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평가활동과 컨설팅 활동이 활발하다. 창조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평가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를 중심으로 서비스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러한 활동에 종사하는 인력 양성 수요가 교육 관련 컨설팅과 평가 활동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활동에 종사하는 인력양성 수

4) 한상완 외 2(2013)

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평가전문가 및 컨설팅 인력은 이미 학교 교육권에서도 양성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교육기관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고,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관은 유아교육기관과 특수교육기관이다. 유아교육기관과 특수교육기관은 학생을 중심으로 개별 교수학습 활동이 요구되고, 맞춤형 돌봄이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고용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야간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일자리 증진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공교육 혁신과 관련하여 초중등학교의 시설 환경에 변화가 요구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습자 중심의 학습 생태계가 조성되면 학교시설의 복합화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요구의 연장선에서 노후화된 학교시설에 대한 재건축 사업에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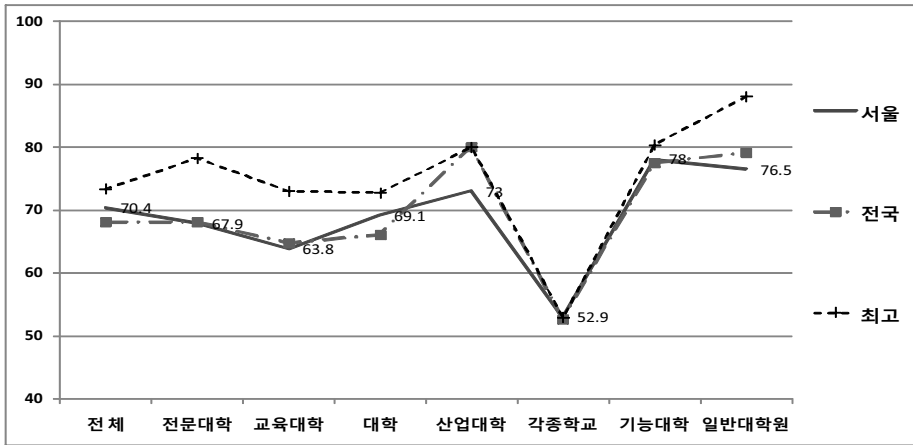
창출된 일자리의 지속 여부는 담당하는 사람의 역량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에 달려 있다. 일자리는 사람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는 일자리라면 없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람의 역량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창조경제에서 요구하는 창조서비스 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교육 훈련 투자가 더욱 증대되어야 한다.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직무 역량을 계획하고 고용으로의 연계를 지원하는 역할은 교육서비스가 담당해야 할 몫이다. 인적자원 개발과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교육 서비스업에 관심을 기울일 때이다.

#### 4. 서울 지역의 교육 서비스업 활성화 방향

교육 서비스업이 창조산업으로서의 성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서비스업 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고, 인력의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교육 훈련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수요자 맞춤형 정보 서비스 기능이 제고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 서비스업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인력 유형을 적기에 양성·공급해야 하며, 수요자 맞춤형 교육서비스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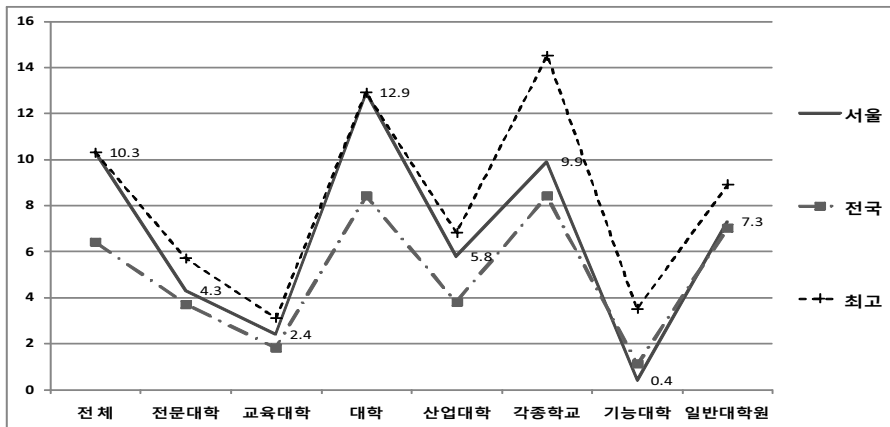
서울 지역에서도 교육 서비스업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더욱이 창조산업과 연관된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창조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여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과 진학률을 중심으로 서울지역의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수준을 살펴보고 교육 서비스업 활성화에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음의 [그림 1]은 2012년 취업통계연보에 제시된 교육기관별 졸업자의 취업률을 제시한 것이고 [그림 2]는 진학률을 제시한 것이다. 서울 지역의 취약점을 진단하기 위하여 전국 평균과 최고 수준을 비교적으로 제시하였다. 고등교육 기관의 유형은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일반대학원의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그림 1] 2012년도 고등교육 기관 졸업자의 취업률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2 고등교육기관졸업자: 건강보험 및 국세DB 취업통계연보.



[그림 2] 2012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진학률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2 고등교육기관졸업자: 건강보험 및 국세DB 취업통계연보.

서울지역의 고등교육기관 전체 취업률은 70.4%로 전국 평균 68.1%보다 다소 높으나 진학율은 10.3%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진학율이 최고 수준인 이유는 대학교 졸업자의 진학율이 전국 최고수준이기 때문이다. 취업률을 교육기관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대학교와 각종학교, 기능대학교를 제외하고는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반면, 진학률은 기능대학교를 제외하고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이 일반 4년제 대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학 교육과정 또한 취업 지향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진학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대학원으로서의 진학율이 최고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창조경제에서는 창조산업 창출을 중심으로 대학에서의 창업 지원을 활성화하고 있다. 교육 서비스업에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과 전문대학과 산업대학 졸업자의 취업이 촉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교육과정이 노동시장과의 연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조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산업의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급 전망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창조산업의 관점에서 고용효과가 높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창의 상품을 개발하고 제작생산하는 인력 군의 확보 관점에서 창조 서비스를 위한 지원 인력 군을 확보하는 관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창조 상품 개발과 지원 서비스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과 산업대학 졸업자의 창업 지원을 더욱 적극 지원할 필요가 높다.

아울러 인력 유형별로 필요로 하는 직무내용과 연계하여 핵심 역량을 개발하고 직업의 생애 주기와 연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체계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고령화에 부응하여 고령자의 재취업과 평생학습을 촉진하는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여성인력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의 서비스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